

# 하도급계약에 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⑧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 1. 현금 50%, 어음 50%로 계약한 경우 대금지급은?

- Q** 1) 당초 하도급계약시 대금지불조건을 현금 50%, 어음50%로 명시하고 실제 지급시 어음의 비율을 83%로 지급한 경우 하도급법상 위반여부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물변제의 하도급법 위반여부

**A**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함)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리 7.5%의 어음할인료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법정지급기일은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리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2) 하도급법 제17조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 2.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해야 하는지?

- Q**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하도급업자에게는 목적물수령(인수)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A**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관계없이 하도급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발주처에 보낸 계약서와 사실상의 계약서가 있을 경우 하도급대금지급은?

**Q** 00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을"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하도급계약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원사업자인"갑"은 위 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 에게 통지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서로서 실제로는 공사약정서상의 계약금액이 유효한 계약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하도급대금은 공사약정서상의 계약금액에 맞게 지급되었으나, 세금계산서나 입금증은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발행되었는데 이 경우, 하도급법 적용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어느 것인지?

**A** 원칙적으로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 하게 되며 그 합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면을 작성교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이한 계약서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합의내용에 입각한 계약서가 유효한 하도급계약서로 인정된다. 실제 시공과 관련하여 작성되지 않고 다른 목적(예컨대, 저가 하도급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발주자 통보용으로 작성)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합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에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



건강  
상식

### 추울 때 술을 마시면 따뜻해진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실제로 몸이 따뜻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러시아에서는 특히 겨울철에 독한 술인 보드카가 많이 팔린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선 보드카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못지않은 음주 초강대국 한국에서도 역시 겨울철엔 독한 술이 많이 팔린다. 하지만 이는 위험하기까지 한 그릇된 통설이다. 알코올이 몸속에 들어가면 모세혈관이 활짝 열리면서 피부로 피가 몰린다. 자연히 피부를 통해 많은 열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마치 온몸이 따뜻한 것처럼 느껴지며, 기분도 좋아진다. 하지만 반대로 몸속은 차가워지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왜 그럴까?

사람은 체온을 36~38℃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항온동물이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로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려고 하면 반사적으로 우리 몸은 체온을 정상으로 회복하려 한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열이 많이 나면 땀을 흘려 체온을 식힌다. 또, 바깥 날씨가 추워지면 주요 장기의 온도가 떨어

지는 걸 막기 위해 혈액이 몸속 가운데로 흘러 들어간다. 하지만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임상약리학과 과장인 헤인즈(William Haynes) 박사는 우리 몸속으로 알코올이 들어오면 이런 기능이 마비된다고 설명한다. 즉, 바깥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피가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 장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초혈관에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겨울철에 음주 동사자나 음주 익사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겨울철마다 러시아에서는 만취한 남성들이 거리에서 동사했다거나,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지거나 차에 치어 사망했다는 기사가 신문 지면을 장식하곤 한다. 음주 후에는 냉수 샤워도 금물이다. 술에서 깨기 위해 냉수 샤워를 하면 졸음은 쫓을 수 있지만, 음주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몸속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찬물까지 끼얹다가 자칫 변을 당할 수도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도 많으나, 탄산음료는 술이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술에 더 빨리 취하게 할 뿐이다.